

식품과학과 영양 분야의 융합을 통한 학계와 산업체의 가교역할을 기대하며

회장 류 기 형 (공주대 교수)



존경하는 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독자 여러분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1971년에 창립되어 지난해 50주년을 맞이하고, 2022년에 새 백 년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우리 학회는 식품 관련 연구 및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자 하는 학회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바탕으로, 식품 산업체와의 가교역할을 통한 산학협력 기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식품과학과 식품영양 분야의 학계, 산업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1,5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식품 전반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학회입니다. 학술지의 구성도 식품과학과 영양 분야 관련 논문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투고논문의 질과 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KCI, SCOPUS 등재), Preventive Nutrition and Food Science(KCI, SCOPUS 등재), Journal of Medical Food(SCIE)와 산업지인 식품산업과 영양을 발간하여 식품과 영양 분야를 선도하는 학회지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식품산업과 영양의 발간을 통해 산업체와 소비자에게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 산업지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단편적이고 협소한 단일지식으로 다양한 학문과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학계는 단일지식에서는 강했지만, 융합지식은 해외 학계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식품과 영양 분야의 융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여 온 우리 학회는 다양한 지식의 융합과 적용 및 연계를 통해 국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에 대한 회원과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기대하며,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Jeju ICC)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를 비롯한 여러 학술 활동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식탁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듯이, 국민의 식생활을 보면 그 나라의 품격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 연구실이라는 한정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 식생활 현장과 식품산업 발전 전반에 이바지하는 산업지가 되길 바라면서 학회에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독자분들을 위하여 소중한 정보를 담은 원고를 준비한 저자분들과 원고를 편집한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식품산업과 영양이 식품 관련 연구와 산업체의 가교역할을 통한 산학협력에 이바지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